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 축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1994년 처음 창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국내 방송미디어 기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1981년 컬러TV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방송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2012년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였고,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하는 등 방송미디어 전문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새로운 방송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비롯해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방송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회장분들과 박구만 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일상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을 바꾸고 있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미디어에서도 미디어 생성에서 소비까지 전 분야에 걸쳐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통합솔루션을 이용하여 방송콘텐츠를 제작, 편집, 송출하는 등 방송산업의 인프라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차, UAM 등 새로운 미디어 소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차세대 방송표준인 ATSC 3.0 관련 기술개발부터 생성형 AI 기반 미디어 제작 등 방송미디어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방송미디어 기술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방송산업과 서비스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송미디어 기술 연구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송미디어 전문가 양성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방송찬입니다.

우선, 1994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헌신해 오신 학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방송과 미디어 분야의 연구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발표한 수많은 연구 결과는 산업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학·연·관 전문가들과의 교류는 대한민국 ICT 연구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학회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방송 및 미디어 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상파 DMB, 3DTV, UHD TV 등의 기술 개발과 MPEG, ATSC 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인공지능 등 분야 간 융합을 통한 기술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OTT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출현으로, 방송·미디어 산업은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래 방송·미디어 분야의 기술 발전과 세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혁신적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 축사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4년 『한국방송공학회』로 출범하여 2015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로 확대 개편한 후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방송 미디어 산업의 초석이 되는 방송미디어 기술의 요람으로, 그동안 디지털방송(DTV),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스마트TV 서비스, 양안식 3D 방송, 그리고 지상파 UHDTV 방송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송미디어 공학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술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여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학회의 일원으로, 디지털방송 데이터서비스, DMB 서비스, 양안식 3D 방송, 그리고 UHDTV 방송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방송미디어 산업에 일조를 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 산업은 통신, AI, 클라우드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의 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OTT, 유튜브, 소셜미디어, 숏폼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의 제작과 공급, 그리고 소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선도적인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의 축으로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AI 시대에 발맞춰,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후학을 양성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축사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1994년 창립한 이래로 방송공학회 논문지를 비롯하여 학술지인 방송과 미디어 발간, 다양한 국내·국제 학술활동 등으로 대한민국의 방송·미디어 분야의 기술발전·산업진흥과 인재양성을 이끌며, 우리나라가 창의적이고 건강한 방송·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CT R&D 30년 역사 속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유선 중심에서 무선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한 모바일 환경의 대응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세계 최초 UHD·DMB 상용화 등을 기획·추진하며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과 초고화질 콘텐츠의 생산·소비가 가능한 '내 안의 TV, 나만의 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잠재력이 풍부하 디지털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세계 방송·미디어 분야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술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중심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 정보통신(ICT)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을 총괄 지원하는 IITP는 국내 방송·미디어 학계, 산업계 등의 혁신적이고 도전적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송·미디어의 글로벌 기술패권을 확보하고 지능화·실감화·고속화·초개인화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반도체, 확장현실(XR), 양자컴퓨팅·통신 등 보다 범용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에 기획력과 추진력을 담보하며 우리나라의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G3 국가 도약을 위해, IITP는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와 함께 R&D가 R&D로 끝나지 않도록 전주기 R&D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확산시켜 나아가는 '디지털 프론티어(Digital Frontier)'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30년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성과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더 큰 걸음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 축사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창립 이래,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우리나라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술연구, 표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방송기술의 발전과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산업 분야의 기술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며, 이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방송과 미디어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AI 기반의 미디어 제작과 전송, 메타버스 등 앞으로 미디어 제작과 소비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지난 30년간 방송과 미디어 산업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도 여러분과 함께 국가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축사

존경하는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기술본부장이자 공학회 협동부회장 강동구입니다. 한국방송·미디어 공학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학회가 이룩한 눈부신 발전과 기여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학문적·기술적 성취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연구자, 관계자분들, 특히 현 회장인신 박구만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디지털 방송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막 태동하던 시기에 출범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그 동안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며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디지털 방송, IP 기반의 미디어 전송 기술, 초고화질 영상, 가상·증강 현실,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며,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학회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 연구자들이 모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최신 기술을 논의하며, 방송미디어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교류는 물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미디어 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형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으며, 이는 곧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미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지난 30년처럼 앞으로의 30년도, 나아가 그 이상의 세월 동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학회의 모든 회원들께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창의적인 연구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동 구  
KBS 기술본부장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 축사



김상진  
SBS CTO

올해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학회의 선배 후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회는 항상 방송미디어 공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왔고, 그 결과의 산물은 방송미디어 소비자에게 늘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방송, 모바일 방송, 3DTV, UHDTV 방송과 AR, VR,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탐구하는 정신과 열정은 항상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의 제작 기술과 유통 기술도 학회의 노력으로 늘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방송미디어 각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방송미디어의 각 요소에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 어느 때에도 방송미디어는 당대의 최고 기술이 집약된 분야임과 동시에 가장 주목받는 분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그 기술의 한계는 없다고 감히 믿고 싶습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지식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학회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방송미디어 공학의 발전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 학회의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창립은 대한민국 방송공학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본격화하여,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외 방송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디지털 방송과 고화질(HD) 방송의 도입, 지상파 및 유료 방송 서비스의 성장과 세계 최초 지상파 DMB 상용화 등 기술 변화에 발맞춰 연구와 개발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 정립과 연구 개발을 주도하여 방송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기존 HD 방송에 비해 4배 높은 해상도로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방송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AI,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들이 방송과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술 발전은 방송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회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 혁신의 선두에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이 AI 기반 자막 생성 시스템, 음성 인식(STT) 서비스, AI 기반 고화질 업스케일링 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학회의 노력과 긴밀한 협력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한국 방송사들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방대한 콘텐츠 아카이브는 AI 학습의 귀중한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학습 데이터는 대부분 영어권 기반이지만, 우리의 아카이브는 우리만의 정서와 개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카이브를 활용한 '한국형 AI'의 개발은 향후 한국 방송 기술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기술 혁신에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중심에 있었듯이 앞으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방송과 미디어 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이끌었고, 대한민국 방송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미디어 환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OTT 플랫폼의 성장, 가상 및 증강현실(XR)의 도입 등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판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방송과 미디어의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학회의 활동과 발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이희석

MBC 인프라본부장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 축사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4년 창립 이래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있는 단체로 우리나라의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술연구, 표준, 산업, 제도, 인재 양성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3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 지속가능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 차세대 방송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기술 리더십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최근에는 생성형 미디어를 기반으로 지능화 기술, 다감각 기반 휴먼미디어 기술, 모빌리티 기반의 신규 미디어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생태계 성장과 혁신에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방송 2세대 표준인 ATSC 3.0 기반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에 고화질 방송, 다채널 방송, 이동 방송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방송미디어는 TV를 넘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차량, UAM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플랫폼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및 ICT 기업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모빌리티 핵심 경험으로 차량 내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무한 경쟁을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지난 4월 NAB Show에서 정부, 유관기관, 국내외 기업 등과 협력해 OTM을 주제로 모빌리티 미디어 로드맵과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 서비스와 플랫폼을 전시했습니다. OTM은 Over The Mobility의 줄임말로, 고정된 장소에서만 수신 가능한 전통적인 개념의 방송인 OTA(Over The Air), 브로드밴드와 결합한 OTT(Over the Top) 이후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지칭하는 용어로 NAB Show에서 처음 소개된 바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시대 초연결사회로 시공간의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기 위한 디스플레이로 TV가 전부였던 시대에서 모바일, 태블릿, 사이니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으로 콘텐츠 유통 수단이 진화하며 방송미디어는 언제 어디서든지 연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람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 방송미디어 시장은 디스플레이 분야와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모바일,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퉀 미래 미디어 플랫폼 산업에 주목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창립 30주년

### 축사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인맞춤형 삶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넷플릭스와 협약, 혼다는 소니의 게임·영화·음악 서비스 접목, LG전자는 미래 모빌리티 고객경험을 위해 Alpha-able 발표,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전용 서비스 앱스토어 제작 등 탑승객들이 이동 중에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차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업무 및 교육 등을 구현하는 등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사회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일은 그동안 국내 방송미디어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과 교류,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노력한 학회의 신념과 열정에 의해 더욱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 방송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과제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할 수 있는 한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30년의 역사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단체로 지속 성장 발전하시기를 기대하고,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